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박 준 식* · 박 은 정**

〈목 차〉

- | | |
|--------------------|-----------------------|
| I. 서 론 | C.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
| II. 이론적 배경 | III. 조사 및 결과 |
| A. 계속교육의 의의 | A. 조사 목적과 절차 |
| B. 계속교육의 형식과 시행 기관 | B. 결과 및 분석 |
| 1. 계속교육의 형식 | IV. 결론 및 제언 |
| 2. 계속교육의 시행기관 | Abstract |

I. 서 론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전달하는 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학술 연구와 교육에 뒷받침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 정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은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면에서 대학도서관의 평가 기준이 과거와 같이 시설이나 장서의 규모나 대출 자료수 등의 외형적인 기준 보다도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용자 중심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핵심인 참고봉사를 담당하는 참고사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제반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강사

여건과 정보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며 아울러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의 최신성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계속교육이라는 학습의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성취시킬 수 있다.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은 1960년대 부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 부터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행면에서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그 내용과 방법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계속교육은 전체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둔 전문화된 계속교육은 아니었다.

계속교육을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적인 대상은 참고봉사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각종 정보매체가 전자화 되거나 멀티미디어화하는 과정에 있고 도서관간의 네트워크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수작업 위주의 참고조사 기법이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된 탐색기법을 필요로 하게됨에 따라 참고사서는 새로운 대응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참고정보원의 출판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필요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교육내용, 관리기법의 등장으로 인해 참고사서 만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방법과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대학도서관 참고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계속교육에의 참여 여부, 계속교육의 내용, 계속교육의 기관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요소를 참고사서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근무경력별, 참고업무경력별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계속교육을 전문화 시키는 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단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수준을 벗어나 어떠한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로, 어느 기관에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공 함으로써 이 분야의 정책수립이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A. 계속교육의 의의

1. 계속교육의 정의

계속교육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교육학의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UNESCO의 주도 아래 성인을 위한 기초교육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생동안 교육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계속교육은 표현상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나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된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미국을 중심으로 쓰여진 재교육(permanent education,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이다. 오늘날엔 초기의 성인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진전하여 직장에서의 현직교육이나 학교를 졸업 한 후 다시 교육받는 추가교육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인교육, 계속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인교육과 계속교육 모두 평생교육 체계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이 직업과 결부되지 않는 요소가 많은 반면 계속교육은 직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은 일생동안에 받는 정규교육 과정이나 이후의 모든 형식을 포함하는

교육의 가장 상위 개념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¹⁾ 성인교육은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성인을 돕기 위해 계획되고 조직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계속교육은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정규교육 과정 이후 직업적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교육받는 형태로 각종 직업집단에서 일정기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나 재교육 그리고 전체 조직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직원개발, 인력개발도 포함되어 국내에서는 계속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²⁾

일반적으로 계속교육은 학위를 위한 정규교육이나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개인 각자가 선택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따라서 사서의 계속교육은 사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 교육과정 이후에 또는 사서직의 수행 과정에서 직업적 필요성에 따라 도서관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사서직 교육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서직의 계속교육을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도서관 및 다른 정보기관에서 직원들이 그들의 전문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개선하고 변화 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³⁾ 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계속교육은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이념과 지식, 기술 등을 익혀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는 사서가 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개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체

1) G. W. Parkyn. *Towards a conceptual model of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1973) : 7.

2) 김병주, “사서직 발전을 위한 계속교육”, 『국회도서관보』22, 5 (1985, 7-8) : 9.

3)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LA : Chicago, 1983) : 57.

4) Elizabeth W. Stone.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y Information Professional*, (Conn. : Library professional, 1985) : 62.

의 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교육은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

2. 계속교육의 목적

컴퓨터와 원격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대량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수작업을 통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자채널을 통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변화는 사서 개인은 물론 도서관 및 정보 관련 기관의 정적이고 소극적인 정보의 축적 및 배포 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보 공의 대량성, 정확성, 신속성 및 광범위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서들의 자질 향상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통해 체계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⁷⁾

참고사서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영향을 받으며,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① 계속교육을 통해서 지식의 퇴화를 막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 할 수 있다.

- 5) Barbara Conroy, *Library Staff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Principles and Precticles.*(Colo. : Libraries Unlimited, 1978) : xv.
- 6) Jerold W. Appe. *Problem in Continuing Education,* (New York : McGraw-Hill, 1979) : 68.
- 7) Elizabeth W. Stone,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in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Librarianship*, 8(1978) : 241.
- 8) Elizabeth W. Stone, Patrick J. Ruth, and Barbara Conroy.,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 174.

- ② 계속교육을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교육 내용을 최신화 시킬 수 있다.
- ③ 그 분야 안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적이 설정되고 나면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사서를 위한 교육목표는 피교육자인 참고사서를 어떠한 유형의 사서로 만들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는 크게 다섯가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참고서비스의 이념을 구현하는 참고사서의 가치관을 명확히한다.
- ②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처리 과정과 기술을 익힌다.
- ③ 새로운 참고정보원을 소개한다.
- ④ 새로운 탐색기법을 도입한다.
- 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경향과 사조에 대해 이해한다.

B. 계속교육의 형식과 시행기관

1. 계속교육의 형식

계속교육은 교육기간, 장소, 참여하는 사서 등의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여러학자들이 제시한 계속교육의 유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식 교육기관을 통한 계속교육으로 여기에는 대학원의 학위 및 연구과정이나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에서의 위탁교육, 사서교육원을 통한 학점제 과정이 포함된다. 이 형식은 1년이나 그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을 통한 학점제 과정이다. 그러나 공식 교육기관을 통한 계속교육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으나 장기간을 요구하므로 관리자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방법으로 국내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 국립

중앙도서관, 각종 협의회, 학회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나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전문기관을 통한 계속교육은 그 기간이 공식적인 교육기관 보다는 짧으며 교육대상을 일정한 순서로 나누어 시행하므로 교육의 계획과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관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계속교육으로 도서관 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연수 형식과 신규직원에게 대한 연수, 업무개선 보고회, 발표회, 출장복명 발표회, 연구보고회 등이 있다. 그러나 관내 연수 프로그램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넷째,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는 도서관 관리와 연관된 각종 학술대회나 세미나, 심포지엄, 도서관 관련 회의 등에 참여 함으로써 최신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참여후에는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다섯째, 방문이나 견학 등의 현장학습으로 여기에는 국내의 선진 도서관을 짧은 시간에 시찰하거나, 선진국의 도서관에 체류하면서 직접 경험을 쌓는 비교적 장기적인 형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학습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처럼 전문직 계속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의 주제나 시간, 학습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2. 계속교육의 시행기관

계속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문교육기관과 전문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은 학위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심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상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과 사서교육원 과정이 대표적이다.

1)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대학 및 대학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은 일정기간 진학하여 정규교육을 받는 경우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지식과 최신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수료후 자격취득과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시간이나 경비 부담으로 직무수행 중 병행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2) 사서교육원 과정

사서교육원은 1989년 도서관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사서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현직자들의 사서교육 및 연수교육을 통해 자격과 자질을 높이고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사서 자격 전문취득기관으로, 1996년 현재 성균관대 사서교육원과 계명대 사서교육원이 있다.

나. 전문기관, 단체

국내의 도서관 전문단체들은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외국의 경우처럼 확고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서를 위해 세미나, 워크샵, 연수, 강습 등의 유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67년부터 1986년까지는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983년부터 자격연수와 함께 일반연수도 병행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자격증 부여는 대학 및 사서교육원이 전담하게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적으로 현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반연수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94년부터 정부에서 계속교육을 전문교육으로 넓혀야 한다는 인식하에 주제별, 업무별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주일의 전문교육 과정은 독서지도, 정보봉사, 문화행사로 나누어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협회, 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등과 같은 학회가 학술발표회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자 중심으로 인식되어 현직 사서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나 최근 워크숍의 형식을 빌려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그 설립 정신으로 보아 사서직의 계속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구이나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공공도서관협의회와 국립대학교서관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속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식을 보충하고 있다. 유사한 조직으로 전국사립대학교서관협의회가 있다. 이 협의회는 1981년부터 사립대학이란 동일한 성격의 도서관들에서 당면하는 업무의 개선과 최신 기술의 습득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도 독자적으로 회원의 계속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회의 연수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사회 변화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서관 업무도 점차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매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새로운 정보 매체의 접근과 사용방법, 정보검색법 등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학술 정보를 검색, 처리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정보의 저장, 검색, 처리 및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의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여러 업무중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직접 서비스를 해야 하는 참고사서의 경우 그 업무의 기능면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보다도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간혹 참고업무를 참고실에만 한정된 업무로 보고 참고사서를 참고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⁹⁾ 그러나, 참고봉사는 참고실 내의 자료를 기본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그 조사범위를 모든 장서와 타 도서관으로 확대되는 업무이므로, 참고사서의 활동범위도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 봉사부문(public service division)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사서가 참고사서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는 참고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발전시키면서 자료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이용자와 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자료를 가진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라 할지라도 유능한 참고사서의 역할이 부족하면 참고봉사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참고사서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는데 참고봉사가 형성되었던 초기 및 1900년대 초반까지 참고사서의 직무는 정보수집의 수단을

9) 노옥순, 「참고봉사와 참고정보원」,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4): 20.

10) 박준식, 「참고조사론」, 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 출판부, 1988): 150.

제공하는 데 불과 하였다. 이후, 도서관을 통한 연구활동의 이념이 정착되면서 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진보적 이론의 결과 최종 해답의 제공 능력이 참고사서의 주요한 요건으로 바뀌었으며 참고봉사를 위한 네트워크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제반 지식과 더불어 정보전문가로서의 지식, 정보공학기술과 도구에 관한 지식 및 이들의 적응 능력이 요구되었다.¹¹⁾

최근에는 참고봉사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용하도록 준비된 정보 자료의 조직과 전화에 의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 주제 서지의 작성과 배포, 전통적 자료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전문화된 조사의 수행, 특정 이용자의 주제 요구를 위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초록의 작성, 문헌요약 그리고 안내서비스(referral service)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¹²⁾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보면 참고사서가 지나야 할 자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참고사서의 역할도 계속해서 그 폭을 넓혀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기능은 과거 각종 정보자료를 단순히 보존, 열람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유통시키는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사서의 역할도 소극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동료, 서지적 전문가, 정보시스템 관리자이면서 정보이용 제공자¹³⁾로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의 분석과 제공을 위한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도서관 자료의 형태가 전통적 인쇄매체로부터 전자식 또는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출판될 것이므로 이들을 정리하거나 탐색하는 방법도 전통적 수작업으로 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옮

11) William A. Katz,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1 Reference Services & Reference Processes*, 4th ed. (New York : McGraw-Hill, 1982) : 31.

12) Mary Ellen Soper, *The Librarian's Thesaurus*, (Chicago : ALA, 1990) : 76-79.

13) Allen B. Veaner, "1985 to 1995 : The Next Decade in Academic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0,3 (1985) : 83.

거가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 즉, 계속교육을 통해서 만이 가능할 것이다.

Ⅲ. 조사 및 결과

A. 조사 목적 과 절차

본 조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합리적인 형식과 내용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도서관 중에서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서관을 제외한 전국의 83개 대학도서관 중 참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1995년 12월 26일에 송부하여 1996년 1월 22까지 회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율은 조사대상 83개관 중 72개관이 응답하여 86.7%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빈도와 백분율을 주로 사용했으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근무경력 및 참고업무경력 등에서 유의도 검증이 가능한 항목은 χ^2 검증 처리하였다. 학회나 협회의 소속 여부는 다응답 처리(multiple response analysis)를 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마이크로 컴퓨터용 통계 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B. 결과 및 분석

1. 계속교육의 인지도와 필요성

계속교육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반응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94.5%(68명)로 매우 높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도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응답자의 대부분(97.3%)이 긍정하였다.

<표 1> 계속교육의 인지도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매우 잘 알고있다	30	41.7
조금 알고있다	38	52.8
잘 모른다	4	5.5
계	72	100.0

<표 2> 계속교육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매우 필요하다	53	73.6
조금 필요하다	17	23.7
필요치 않다	2	2.7
계	72	100.0

2.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필요성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52.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참고사서가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화된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필요성

인 지 도	빈 도	백 분 율
매우 필요하다	38	52.8
조금 필요하다	32	44.4
필요치 않다	2	2.8
계	72	100.0

3. 계속교육의 참여 경험

계속교육의 참가는 〈표 4〉에서와 같이 66.7%(48명)가 응답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참고사서가 계속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계속교육의 참여 경험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계속교육 참여	48	66.7
경험없음	24	33.3
계	72	100.0

4.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참여 경험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참여 여부는 〈표 5〉와 같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22.2%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참고사서가 전문화된 계속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참여 여부에 대한 참고사서의 연령별 변인과 학력별 변인은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참여 여부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계속교육 참여	16	22.2
경험없음	56	77.8
계	72	100

(표 6)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참가 여부에 대한 연령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구 분 성별	계속교육 참가		계속교육 불참		합 계	
	관찰빈도(fo)와 기대빈도치(fe)	%	관찰빈도(fo)와 기대빈도치(fe)	%	빈도 (fr)	%
20대	1 (1.77)	6.2	7 (6.23)	12.5	8	11.1
30대	7 (8.67)	43.8	32 (30.33)	57.1	39	54.2
40대	8 (5.56)	50.0	17 (19.44)	30.4	25	34.7
계(fe)	16	22.2	56	77.8	72	100.0

$\chi^2 = 2.118$ $df = 2$ $P = 0.146$

(표 7)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참가 여부에 대한 학력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구 분 성별	계속교육 참가		계속교육 불참		합 계	
	관찰빈도(fo)와 기대빈도치(fe)	%	관찰빈도(fo)와 기대빈도치(fe)	%	빈도 (fr)	%
고교졸업 및 전문대 졸업	8 (4.67)	50.0	13 (16.34)	23.2	21	29.2
대학 졸업	3 (7.55)	18.8	31 (26.44)	55.4	34	47.2
대학원 졸업	5 (3.78)	31.2	12 (13.22)	21.4	17	23.6
계(fe)	16	22.2	56	77.8	72	100.0

$\chi^2 = 7.101$ $df = 2$ $P = 0.029$

5. 계속교육의 유형별 필요성

계속교육의 유형별 필요성은 <표 8>과 같이 워크샵이나 세미나, 학회 참석이 38.3%(64명)로 가장 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내·외의 각종 연수로 16.2%(27명),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12.6%(21명), 단기과정, 강습과정이 12.6%(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서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높이는 과정인 사서교육원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8〉 계속교육의 유형별 필요성 정도

유형	필요하다		필요치않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워크샵, 세미나, 학회 참석	64	38.3	0	0
국내·외의 각종 연수	27	16.2	2	3.0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21	12.6	2	3.0
단기과정, 강습과정	21	12.6	9	13.4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14	8.4	11	16.4
사서교육원 등의 자격 취득과정	12	7.1	29	43.3
대학원 등의 학위 취득과정	8	4.8	14	20.9
계	167*	100	67*	100

* 복수 응답

6. 계속교육의 형식별 만족도

계속교육의 여러 형식 중에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워크샵, 세미나, 학술회의 참가가 가장 높은(40.9%)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 과정은 15.6%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

학원이나 사서교육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인 다양한 계속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지만 그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표 9〉 계속교육 형식별 만족도

형식	만족도		만족도		불만족도	
	빈도	%	빈도	%	빈도	%
워크샵, 세미나, 학회참석	50	38.2	45	40.9	5	20.0
국내·외 각종 연수	24	18.3	16	14.5	8	32.0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21	16.0	17	15.6	4	16.0
단기과정, 강습과정	17	13.0	13	11.8	4	16.0
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11	8.4	9	8.2	2	8.0
대학원 등의 학위 취득과정	6	4.6	5	4.5	1	4.0
사서교육원 등의 자격 취득과정	2	1.5	5	4.5	1	4.0
계	131	100.0	110*	100.0	25*	100.0

* 복수 응답

7. 참여한 계속교육의 교육내용과 기대 내용

참고사서가 참여한 계속교육의 내용은 조사 결과 〈표 10〉과 같이 정보전산화 분야가 14.6%(4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참고봉사 분야가 12.9%(37명)이고, 주제별서지 분야가 10.8%(31명)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표 10〉 참여한 계속교육의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계속교육참가내용		
정보·전산화 분야	42	14.6
참고봉사분야	37	12.9
주제별서지분야	31	10.8
이용자봉사 분야	25	8.7

분류 및 목록 분야	24	8.3
뉴미디어 분야(시청각 자료 포함)	22	7.7
도서관 경영, 관리, 인사 등	22	7.7
외국어 분야	20	7.0
도서관학 기초 이론 분야	18	6.3
자료선택 및 수서 분야	18	6.3
서고관리 및 장서점검	17	5.9
일반교양 분야	11	3.8
계	287*	100.0

* 복수 응답

또한, 문헌정보학 전 분야에 걸친 계속교육의 기대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미디어 분야가 24.3%(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 전산화 분야가 43명(15.3%), 참고봉사 분야가 29명(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계속교육의 기대 내용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계속교육 참가내용		
뉴미디어 분야(시청각 자료 포함)	68	24.3
정보·전산화 분야	43	15.3
참고 봉사 분야	29	10.3
이용자봉사 분야	26	9.2
외국어 분야	24	8.8
주제별서지 분야	23	8.5
자료선택 및 수서 분야	19	6.7
도서관 경영, 관리, 인사 등	17	6.0
분류 및 목록 분야	11	3.9
서고관리 및 장서점검	8	3.0
일반교양 분야	6	2.2
도서관 기초 이론 분야	5	1.8
계	279*	100.0

* 복수 응답

8.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내용과 기대 내용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참가하였을 경우 그 교육내용을 조사한 결과 <표 12> 와 같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23.3%(13명), 이용자연구, 이용자교육이 17.9%(10명), 일반 참고정보원이 14.2%(8명)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 할 경우 가장 원하는 교육내용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미디어의 활용이 응답자 중 19.5%(58명)로 가장 높았으며, 네트워크 기법과 이용 16.5%(49명), 커뮤니케이션과 면담기술 14.8%(44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계속교육 참가내용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활용	13	23.3
이용자연구, 이용자교육 등	10	17.9
일반 참고정보원	8	14.2
주제별서지 정보원	7	12.5
참고봉사의 일반 이론, 조사 방법	7	12.5
뉴미디어 활용(CD-ROM, Internet 등)	5	8.9
네트워크 기법과 이용	4	7.1
커뮤니케이션과 면담기술	2	3.6
계	56*	100.9

* 복수 응답

<표 13>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기대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계속교육 참가내용		
뉴미디어 활용(CD-ROM, Internet 등)	58	19.5
네트워크 기법과 이용	49	16.5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활용	45	15.2

커뮤니케이션과 면담기술	44	14.8
주제별서지 정보원	38	12.8
일반 참고정보원	27	9.1
이용자연구, 이용자교육 등	25	8.4
참고봉사의 일반이론, 조사방법	11	3.7
계	297*	100.0

* 복수 응답

9. 계속교육 시행 기관과 기대 기관

참여한 계속교육의 시행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64명(30.4%)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도서관협의회는 47명(22.2%), 한국도서관협회가 33명(15.7%)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대하고 있는 시행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주최를 희망하고 있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점이 많다.

<표 14> 시행 기관과 기대 기관

주최기관 \ 구분	시행기관		주최희망기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립중앙도서관	64	30.4	63	22.0
대학도서관협의회	47	22.2	52	18.1
기타 도서관 관련 전문단체	33	15.7	21	7.3
한국도서관협회	31	14.7	57	19.9
도서관 관련 학회	28	13.3	29	10.1
해당 지역의 대학, 대학원	6	2.8	44	15.3
사서교육원	2	0.9	21	7.3
계	211*	100	287*	100

* 복수 응답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전국의 대학도서관 참고사서를 대상으로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방법과 교육내용, 교육 시행기관 및 단체 등에 관한 실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속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94.5%의 참고사서가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73.6%로 나타났다.

2)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화된 계속교육의 필요성은 참고사서의 97.2%가 긍정하였다.

3) 계속교육의 참여 경험은 66.7%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수의 참고사서가 어떤 형태이든 계속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22.2%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화된 계속교육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여부에 대한 참고사서의 연령별, 학력별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계속교육 형식별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워크샵, 세미나, 학회참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외의 각종연수,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순으로 응답하여 짧고 간단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계속교육의 형식별 만족도는 형식별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워크샵이 가장 높으며 국내, 외의 각종연수,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실습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이고 다양한 계속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지만 그 효용성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7) 참여한 계속교육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보, 전산화 분야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참고봉사 분야, 주제별서지 분야, 이용자봉사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교육내용은 뉴미디어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 전산화 분야, 참고봉사 분야, 이용자봉사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8)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내용 중 참가한 교육내용은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가장 높았고, 이용자연구와 이용자교육, 일반 참고정보원의 그 다음 순이었다. 참고사서를 위한 기대 교육내용은 뉴미디어 활용(CD-ROM, Internet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네트워크 기법과 이용, 국내·외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커뮤니케이션과 변답 기술의 순이었다.

9) 계속교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한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그다음이 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도서관협의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하는 계속교육의 시행 주체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의회와 대학도서관협의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이 이상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은 전문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교양교육은 현재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의회 등이 주관체가 되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교육은 독서 및 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된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사서교육원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설비, 우수한 교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교육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 단체들은 소속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계속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학기제를 통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방학이나 주말 그리고 야간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참고사서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속교육의 기회를 넓힌다.

셋째, 참고사서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의 구성과 제공이 필요하다. 도서관 분야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계속교육은 전체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에 한정되었고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서관 업무도 복잡해지고 있어 시대적 추세에 맞게 참고사서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Continuing Education for Reference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Park, Joon-Shik* · Park, Eun-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the theoretical systems concerning the necessity, methods, contents, and institutions of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academic reference librarians in Korea, and to present a direction after performing a survey research to the librarians and grasping the phenomena on the basis of the system.

The necessity, participation, contents, and performing institutions of continuing education were examined in detail,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 sub-groups divided by gender, age, academic level of study, career as a librarian were analyzed. Also the dire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for reference librarians was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contents,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or an ideal form to the continuing education of the reference librarians were presented in this thesis.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 Lecturer, Th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ervice, Keimyung University.

1)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inuing educations are performed at a professionalized institutions such as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in a college and an education center for librarians which offers the Certificates of Advanced Study(CAS) as a librarian.

2)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program in which a working reference librarian may take more chances to study during vacation, weekends, or in the evening time.

3)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per educational contents that reference librarians want, and to educate the librarians in order for them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of times.